

# 세기말에 캐묻는 인류 문명의 근원

## 장구한 인류의 생활풍속 등 문명발전사 조명

바야흐로 세기말이다. 이제까지의 인류역사로 볼 때 세기말은 대부분 혼돈과 혼란의 시기였다. 가치관의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회의, 그에 따른 극도의 염세주의와 퇴폐주의 등이 이 시기를 휩쓸곤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때일수록 역사의 진보를 믿고 인간 존재의 근원을 캐물어가는 작업이 진지하게 이뤄지기도 한다.

얼마전부터 출판계에 일기 시작한 역사서 출간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예의 세기말 현상 중의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특히 이즈음 눈길을 끄는 역사서들은 그동안 익숙했던 사건, 사실 중심의 역사기술에서 벗어나 문명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다룬 문명사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인류의 장구한 생활문명사

일반 독자들이 역사서 읽기에 대한 별다른 부담감없이 대할 수 있는 책으로는 《서양문명의 역사》(E.M. 벤즈 외/박상의 옮김/소나무/전4권)와 《원시에서 현대까지 인류생활사》(찰스 엘런 외/동아출판사)를 꼽을 수 있다.

《서양문명의 역사》는 1941년 초판 간행이후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읽히는 ‘오랜 생명력을 지닌’ 역사서의 하나로, 국내 번역본은 전면 개정작업을 한 10판(1984)을 원본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 개설서들이 60년대초까지의 연구수준을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이 책은 80년대 중반까지의 성과를 담고 있어, 특히 2차대전 이후의 현대사 부분에 충실을 기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제목 그대로 서양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은 역사를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연대기로서가 아니라 ‘문명의 역사’로 파악하고 사상과 제도의 발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및 페르시아, 히브리, 히타이트·미노아·미케네 및 군소문명 등 4개 권역으로 서양문명의 시원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정련된 학문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이야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그동안 개정을 거듭하면서 지도와 화보를 대폭 보완, 삽화와 사진만도 8백개 이상을 수록하고 있다.

《원시에서 현대까지 인류생활사》는 리더스



고대 이집트의 짧은 허벅지 포도주 항아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고 있는 모습. (인류생활사) 중

다이제스트사에서 발간한 볼륨있는 기획물로 전대륙을 망라해 인류의 장구한 생활풍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수렵과 채집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며 동굴에서 살았던 최초의 인류에서부터 산업혁명을 거쳐 고층건물에 살면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 19세기말의 북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1만5천 년이 풍부한 사진과 삽화와 함께 백과사전식으로 펼쳐져 있다.

인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구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자연스런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됐다는 이 책 역시, 정치사적으로 비중있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조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바야흐로 세기말, 가치관 혼란기에

인간존재의 근원을 캐는 작업이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역사서들은 사실

중심의 기술에서 벗어나 문명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다룬 문명사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인류의 장구한

생활풍속 등 문명의 시원과 발전을

실질적인 삶의 모습 속에 찾고 있는

이들 책은 아쉽게도 거의 번역서다.

인류의 탄생에서 로마제국까지 기원전 10만 년에서 서기 100년까지를 다룬 ‘고대문명의 탄생’, 동로마제국에서 중세를 거쳐 근대유럽의 형성기까지 서기 100년에서 1775년까지의 ‘구세계와 신세계’,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쳐 미국이 부상하기까지 서기 1776년에서 1900년까지를 다룬 ‘근대시민사회’의 3부로 나뉘어 있다.

특정 문명권을 대상으로 한 역사서들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는데, 최근에 선보인 책들은 공교롭게도 서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슬람 문명사》(버나드 루이스 엮음/김호동 옮김/이론과실천)는 이슬람권으로 통칭되는 서아시아의 역사를 종교, 건축, 문학, 사상, 과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필진도 미국과 유럽의 이 분야의 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간 서구사 중심의 역사학계에서 아시아권은 중국연구 정도가 고작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슬람 세계가 이룩한 독특한 특성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이 책은, 이란혁명과 소련붕괴 등 최근 자료를 충실히 보완해 18세기 이후 서구로부터 받은 충격과 그에 대한 대응, 저항의 양상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역시 평이한 서술과 도판, 삽화의 적절한 배치로 전문서가 갖는 지루함과 딱딱함을 많이 극복하고 있다.

### 특정 문명권 대상으로 한 역사서

근동지방(서남아시아)의 문명을 다룬 《문명의 발생》(찰스 레드만/최몽룡 옮김/민음사)은 디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연안에서 발생한 세계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정체를 조

망하고 있다. 부제인 ‘근동지방의 초기 농경민에서 도시사회까지’가 말해주듯 기원전 8천 년에서 2천년까지 이 문명의 역사를 전통적인 고고학의 편년과 형식에 따르지 않고 문화변이에 따른 각 시대의 발전단계를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번역을 맡은 서울대 최몽룡 교수는 이 책이 고고학 사례연구의 모범으로, 문명의 발생과 전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술사적 검토, 이론, 고고학적 자료의 선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거의 완벽하면서도 명쾌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밖에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분야의 기획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로 우선 시공사에서 펴내고 있는 ‘디스커버리총서’를 들 수 있다.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발견총서’ 한국판인 이 시리즈들은 현재 1차분 7권까지 나와 있다. 각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인류역사에서 중요한 문화와 유적·유물 등을 자세하면서도 흥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7권까지의 주제는 문자의 역사, 잊혀진 이집트를 찾아서, 고래의 삶과 죽음, 실크 로드—사막을 넘은 모험자들, 그리스 문명의 탄생, 마야—잃어버린 도시들, 반 고호—태양의 화가 등이다. B6변형의 포켓 크기에 연대표와 참고문헌, 삽화, 각가지 진기록까지 수록,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인다.

어린이를 겨냥한 새로운 형식의 역사서들도 눈길을 끈다. 김길사의 ‘윈도우’ 시리즈(전12권)는 영국 돌링 킨더슬리사의 동명의 시리즈물을 번역한 것으로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원리를 탐구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있다. ‘지구에는 살아 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 왔는가’ ‘선사시대의 인간과 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이 책은 사실적인 일러스트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들어 부쩍 눈길을 끌고 있는 이들 역사서들은 이전에 비해 한결 가벼운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으면서도 구성이나 편집에 있어서는 한층 전문성을 기함으로써 역사학의 저변을 넓히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문명사라는 점에서 더욱 일반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제까지 대부분 번역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소연>